전북지식재산센터 감독권한 '도마위'

도, 보조금 10억 지원해주면서 평가위원회 배제된 채 감사보고서만 받아

전북도의 전북 지식재산센터에 대한 감독권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전북도가 심사위원에도 빠져 있는 등 감독권한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이며 참관인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억 원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의존해 별도의 감사 없이 특허청의 감사보고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만 지원하다보니 행정의 발명 마인드 인식제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 지식재산센터장에 외지인이 부임,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전북 지식재산센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지회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40대 초반 광주출신이 센터장으로 파견돼 전북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아무래도 전북출신 인사보다 지역 실정과 소통 부문에서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건 억지 주장이 될수 도 있다. 하지만 도내 업체보다는 특정업체들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관계자가 심사위원에 포함될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참관만 하고 있다. 1개 업체가 최대 6번까지 수혜를 받을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 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0년 발명풍토 조성과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8년 전북도와 특허청이 1:1 매칭으로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정보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신광영기자

"지역특구 지정 실효성 재점검 해봐야"

중기청 "정부 추진 사업 성과 저조 국민 혈세만 낭비… 제도개선 절실"

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구 지정으로 인한 실효성을 차제에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정·운영중인 지역특구들의 성과도 저조한 상황 속에서 추가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없이 숫자만 늘어난다면 현재와 같이 저조한 성과를 내는 지역특구에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175곳에 달한다. 이날 3개의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돼 특구 수는 178곳으로 늘어났다.

지역특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 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수출 확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함양지리산산양삼 산업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등을 신성장자원으로 개발해 전국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전남 고흥과 함양은 지난 2015년 각각 573억원, 108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 중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향토자원특구로 지정된 완주포도주산업특구, 2011년 관광레포츠특구로 지정된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 등 9곳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올해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특정지역에 지역특구 지정이 몰려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남 지역의 경우 21개 지자체에서 35개의 지역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178개 지역 특구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특구가 전남 지역에 몰려있는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중복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1개 지자체에서 2~3개의 중복 특구를 운영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기도 쉽지 않다. 또 동일 지자체에서 2~3개의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특구는 모든 시·군·구에서 해야 하지만 현재 참여를 안하는 곳도 90여개에 달한다"며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관련 부처에 예산을 매칭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잘 안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특화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를 지정할 수 밖에 없다"며 "성과가 안나온 지역에 대해 특구 지정해제를 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해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특구의 성과가 미흡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역특구 지정으로 인한 투자의 분산, 지역특구가 주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은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현행 인센티브 시스템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특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 또는 중기청의 예산지원사업과의 연계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여름철 딸기 '무럭무럭' 18일 오후 한 유리온실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여름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농기원은 여름철 재배가 어려운 딸기를 양액냉각기 물안개 재배기술과 다단 원통형 베드를 활용해 농가에 보급할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 콘텐츠' 공모전 열어

전북중기청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9월 16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생활주변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이란 주제로 제3회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을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청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9월 16일까지다.

공모전은 UCC, 사진, 슬로건, 캐릭터 4개 부문으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각각 나눠 실시한다.

공모 작품들은 주제부합성, 작품성, 참신성, 상징성, 의미전달 용이성, 혁신성, 홍보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11월 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중소기업청장상 8점 등 수상작 32점은 11월16일 열리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에서 시상 및 전시된다.

참여방법은 기업가정신 포털(www.e-ship.or.kr)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www.kcef.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더콘테스트 홈페이지 및 공모전 사무국(070-4652-7279)이나 카카오톡(http://goto.kakao.com/@thecontest)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을 공유, 많은 분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수출 증대 기여기업 포상 신청 접수

10종의 유공자 표창 수여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제53회 무역의 날을 맞아 '2016년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신청을 오는 8월 12일까지 4주간 접수한다.

수출 증대에 기여한 수출기업들에게 실적에 따라 100만불부터 750억불까지 40종의 수출의 탑이, 수출기업 대표자와 임직원들에게는 산업훈장(금, 은, 동, 철, 석탑)·산업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표창 등 총 10종의 유공자 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출의 탑 신청자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유공자 포상 신청자격은 역시 같은 기간 100만불 이상 수출한 무역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특수유공자,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이며 선정된 개인 및 기관에 총 700여 개의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된다.

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해외 수요 부진, 유가 하락, 브렉시트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수출 성장을 이뤄낸 수출기업들은 포상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CJ오쇼핑, 창립 21주년 이벤트

CJ오쇼핑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창립 21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행사기간 동안 CJ몰 앱에서 생애 처음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5만원 이상의 TV홈쇼핑 상품에 적용되는 21%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CJ몰을 통해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웰컴 2종 쿠폰팩'(7% 중복쿠폰 + 5000원 중복쿠폰)이 증정된다. 쿠폰을 다운받고 행사 기간 내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땡큐 2종 혜택'(7%중복쿠폰 + 1만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8~21일 중 1일 누적 기준 21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들 매일 선착순 1500명에게는 구매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적립금(최대 5만원)이 증정된다. 신청은 CJ몰 앱에서 1일 1회 가능하며, 4일간 최대 20만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1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일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의 8%를 할인해준다. /안진수 기자

40 · 50대 여성 상품 '인기'

젊은 세대 못지 않은 패션 센스와 자기관리를 자랑하는 4050 여성들이 늘고 있다. 아재패션에 이어 '줌마패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8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4050 여성들의 최신 유행 아이템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 40대 여성의 오프숄더 블라우스 구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다. 50대 역시 2배 이상(1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드 팬츠의 경우 전체 여성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40대 여성의 구매는 2배 가까이(9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점프수트/멜빵바지는 20대 여성의 구매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40대 여성 구매는 67% 증가했고 50대 구매는 19% 늘었다.

언더웨어의 경우 젊은 여성보다 4050 세대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섹시란제리의 40대 여성 구매가 3배 이상(240%) 크게 증가했다. 50대 여성 구매는 5배 이상(4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와이어 브래지어의 40대와 50대 여성 구매는 각각 28% 늘어났다. /안진수 기자